광산구, 도로 하나 사이 너무 다른 삶

아파트 밀집 수완·첨단지구 하남·평동산단 배후지역

쇼핑·병원신축 잇따르며 날로 진화 외국근로자·저소득층 아직도 끼니 걱정

산업단지와 첨단연구 시설이 집약되고 신시가지가 형성돼 광주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고 있는 광산구. 그러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린다.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의 배후 지역인 월곡동과 평동 등 일부지역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이 몰려 살면서 슬럼화하고 있다.

반면 첨단과 수완지역은 연구시설과 쇼핑 및 의료 시설, 대형 아파트가 집중되면서 번화가로 진화해 크게 대조되고 있다.

◇하루 세끼 걱정=이달 초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에 광주에 정착중인 고려인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1만5000원짜리 농협 계열 치킨회사의 쿠폰 수 십장을 내밀며 "쌀과 교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쿠폰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작품판매를 통해 다문화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 기부한 1000장 중, 새날학교측이 고려인들에게 다시 기증한 100장의 일부였다. 고려인들은 간식용으로 지급받은 치킨쿠폰을 쌀로 바꾸려 한 것이다.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인 고려인들이 겨울을 맞아 공단의 일거리가 크게 줄면서 쌀을 구하기 위해 쿠폰을 바꾸려 했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3년 전만 해도 1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00여명 정도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은 공단의 일용직 노동자가 전부다. 요즘처럼 비수기에는 일용직 일자리조차 없어 끼니 걱정을 할 정도다.

비슷한 상황의 각국 이주노동자만 500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 극빈층이나 독거세대 등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지역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 못잖은 수완지구=광산구의 신도심 수완지구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대형병원 등으로 인해 자급형 도시로 거듭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수완지구를 '광주공략 1번지'로 삼는다.

경제 수준이 가장 높다 보니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B패밀리레스토랑은 호남권 최초 매장을 수완지구에 냈다. 중심 상권의 3.3㎡당 분양가는 1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서울에 버금갈 정도다. 풍영정천을 중심으로 웬만한 중소도시의 번화가보다 규모가 크다.

수완지구는 인근의 첨단연구 시설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일취월장하고 있다.

광산구는 전남도의 관할인 광산군이었다가 1988년에서야 광주직할시로 편입됐다.

이후 광산구는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지역이었다가 1990년 중반부터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져, 현재는 광주 면적의 절반에 이르고 인구도 38만명으로 북구에 이어 2번째에 달하는 명실공히 광주 생산과 소비의 축이 됐다. 특히 첨단 연구 및 산업시설이 집약되면서 광주 경제의 심장이 된 셈이다.

동일한 지자체 안에서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만 해소방안은 마땅치 않다. 자칫 한 지역이 빈민촌과 부촌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검은바다가 앗아간 고3 실습생의 꿈

순천 효산고 홍성대 군 울산 콘크리트 작업선 전복 실종

사고 당시 근로자 대피 구조

지난 14일 울산 앞바다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이 전복되면서 현장실습 중이던 순천 효산고 홍성대(19·사진)군이 실종됐다. 이 사고의 실종·사망자 12명 가운데 유일한 고교생인 김군은 1개월만 지나면 현장실습 기간을 마치고 건설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었다.

울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울산시 남구 용연동 앞 0.9마일 해상에서 항타선 석정36호의 대형파이프(높이 80m, 지름 2m)가 넘어지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홍군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이 실종됐고, 7명은 숨졌다.

홍군은 효산고 전자상거래과 3학년으로 다른 동급생 2명과 지난 10월22일부터 울산항 북방파제 제3공구 축조공사를 담당하는 S건설에서 현장실습 중이었다.

홍군은 이날 같은 학교 재학생 2명과 함께 배에서 타설 작업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하다 홀로 실종됐다. 함께 일했던 동급생 2명은 구조됐다.

홍군은 사고 당시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피하도록 소리치는 등 구조를 위해 배 안에서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후 5시께 업무를 마치고 부두로 돌아오려 했으나, 기상악화로 발이 묶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군은 입버릇 처럼 "빨리 취업해 부모님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효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효산고 관계자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깊은 학생이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외국인에 웃음 준 성탄 음악회 16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은광교회에서 열린 '외국인을 위한 성탄 음악회'에서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대선 준비 보성 공무원 숨져

대선 업무 등을 준비하던 공무원이 격무로 숨졌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군 벌교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김길온(53) 총무계장은 휴일인 지난 15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업무 추진과 벌교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준비 등을 위해 출근, 오후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한 뒤 퇴근했다.

김 계장은 이날 밤 9시께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여 분만에 심장마비 증세로 숨졌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성추문 검사' 만장일치 처벌 권고

검찰이 17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 검사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여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과 형법상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판사에게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를 함께 적용해 최고재판소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판례가 있다. 또 검찰이 형법상 폭행·가혹행위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화정 재건축조합장 무죄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6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비사업체 고문 이모(64)씨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이와 별도로 뇌물을 받은 죄만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300만원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흡연자의 역설' 국내 연구서 확인

"심근경색 환자중 흡연자가 오래 살아"

심근경색 환자 중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흡연자의 역설(smoker's paradox)'이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흡연이 비흡연보다 건강에 좋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계했다.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등이 한국인 급성심근경색 현황에 대한 등록연구(KAMIR, KorMI)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심근경색을 겪은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1년 사망위험이 4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5~2010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2만 9199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 중 42.3%는 입원 당시 흡연자였고, 57.7%는 비흡연자(과거 흡연자 포함)였다. 이들을 퇴원 후 1년간 관찰해보니, 흡연자 중 5.4%가 사망했고 비흡연자는 9.9%가 숨졌다. 흡연자의 사망위험이 48% 낮은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는 "통계적으론 유의미하지만 퇴원 후 금연 여부를 통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흡연자의 대다수가 심근경색 후 금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근경색 후에도 계속 흡연한 사람이 원래부터 비흡연자인 사람보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쌍나팔

"제주도 가자"며 택시기사 폭행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후 다짜고짜 "제주도로 가자"며 운전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윤모(22·무직)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타 제주도로 가자고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말리는 기사 김모(57)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아침까지 술이 깨지 않아 왜 제주도를 가자고 했는지 자신도 모를 정도였다"며 쓴웃음.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1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취득!!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1월 14일(월)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2년 12월 3일(월) ~ 2013년 1월 11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1월 11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 :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이어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푹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20호 [광고]